

# 미 재무장관 “인플레이션 내년 하반기 정상 회복”

### 통제력 상실 우려에 반박 “상품공급 증가에도 압박 여전” IMF 수석도 “내년말 정상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현재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간주되는 2%대로 되돌아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내년에 그럴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은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내년에도 여전히 높을 것이지만 나는 내

년 하반기까지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30년 사이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플레이션 급등 상황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전염병 대응책과 그로 인한 공급망 문제를 꼽았다. 옐런 장관은 “미국인에 대한 상품 공급이 상당히 증가했지만, 압박은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지난 22일 공급망 병목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옐런 장관은 미 당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최근 “기록적인 노동력 부족

과 20%에 달하는 집값 상승률, 8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원유 가격, 재정 완화 정책에 관여한 정부 등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의 징후를 보인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이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이 오랫동안 봐온 것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이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그가 틀렸다고 본다.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간 물가상승률 수치가 이미 최고점을 하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타 코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내년 중반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 옐런 장관과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 코피나스는 이날 CBS에 출연해 “상품 가격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오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은 정말 최근 몇 달 동안 크게 올랐다. 그중 일부는 작년 깊은 경기침체로 예상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비록 대유행 상황이 다소 호전되고는 있지만, 대유행 영향이 글로벌 무역을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공급망 이슈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압박은 내년 중반 어느 시점까지 지속될 것이며, 내년 말 무렵 우리 보다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중국, 206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비율 20% 밑으로 감축 목표

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한 206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 비율을 20% 밑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에 관한 업무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는 2060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효율이 국제 선진 수준에 될 것이며 “비화석 에너지 소비가 80%를 넘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의견에서 비화석 에너지 소비는 2030년까지는 2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5년의 65% 수준으로 감축된다. 또한 풍력과 태양력 발전 능력은 1200 기가와트르 늘어난다. 의견에는 2025년 GDP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보다 18% 줄어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하면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의 맹목적인 발전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석탄발전과 석유화학, 석탄 화공 등 산업의 총량을 통제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은 살인축제 아이들 시청해선 안 돼” CNN, 폭력성 경고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전 세계 미디어의 호평 속에서 미국 CNN 방송이 10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드라마의 폭력성을 부각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사로잡는 가운데 의사들은 부모에게 아이들이 보게 해선 안 된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달 넷플릭스에서 첫선을 보인 한국 드라마다. 빗진 참가자들이 거액을 차지하려 어린이용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내용으로, 패배자는 죽음을 당한다. CNN은 “이 쇼는 살인과 폭력을 피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각국에서 게임 따라하기가 잇따르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CNN은 이 드라마에서 영감을 얻은 헬러인 복장도 인터넷 검색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도 관련 콘텐츠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TV-MA(성인 관람가) 등급으로 17세 이하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지만, 어린 청소년들이 시청한다면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소개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아동정신연구소 의사들은 적어도 청소년기 후반까지는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앤더슨 학교·지역 사회 프로그램 대표는 “폭력 수준이 대부분의 프로그램보다 낫다”며 “400명이 넘는 참가자 중 오직 한 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행해진 살인 축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주지사 선거 민주당 지원 유세 나선 오바마 버락 오바마(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버지니아커먼웰스 대학에서 열린 버지니아 주지사 민주당 후보 테리 매클리프(왼쪽)의 유세에 참석해 그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유세 행정에 나타나 유권자 결집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 잇단 병력 손실에 다급해진 미얀마군... “전역병들에 재복무 제안”

반군부 투쟁 지역서 끌어모아  
50~60대 전역자들도 대상

이와 관련, 중북부 사가인 지역의 카파구의 경우에는 최소 50명의 전역자가 이미 재배치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사가인 지역은 시민군의 무장 투쟁이 거센 곳 중 하나다. 전역자들을 상대로 한 재복무 사업은 군부의 최우선 임무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전했다. 북서 지역사령부 사령관이 이달 초 전역병들을 만나는 등 장성들도 사가인 지역 내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자리를 마련해 전역병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전역병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전역 장교가 1만명 이상이고, 20만명 가량의 전역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쿠데타 초기 군을 탈출한 간 코 대위는 이런 움직임은 반군부 세력의 무장 투쟁으로 군이 심대한 타격을 받으면서 모병 작업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주 무둔 구에서 활동하는 시민군 관계자는 군에 다시 들어온 전역병들 대부분은 군부대에 배치되거나, 마을의 출입구에서 경계 근무를 수행 중이지만 일부는 전선으로 배치되는 모습도 보인다고 전했다. 반군부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시민방위군(PDF) 창설 이후 이달 초까지 PDF 공적으로 숨진 미얀마군은 4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 “폐북, 미국 대선 가짜뉴스 확산 경고 목살·방치” NYT, 내부 보고서 입수 보도

페이스북이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즈음해 음모론과 가짜뉴스 확산을 경고하는 내부 목소리를 묵살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페이스북 내부 연구팀이 2019년 7월 ‘캐럴 스미스’라는 가계정을 개설해 서비스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입수,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큐어년(QAnon·극우 음모론)’으로 가는 캐럴의 여정이라는 이름의 이 연구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보수적인 가상의 인물 캐럴이 어떻게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와 싱클레어 방송을 팔로잉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캐럴은 큐어년 가입을 제안 받았고, 그의 페이지는 극단주의와 음모론과 관련한 콘텐츠로 채워졌다. 연구자들은 이 계정이 개설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극단적이고 질 낮은 콘텐츠가 흐르는 곳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후 좌파 성향의 가계정에 대한 극단주의 실험에서도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질 낮은 밈(meme)과 가짜 정치 뉴스를 피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연합뉴스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참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h3>미스트크리너</h3> <p>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p> 	<h3>더스트크리너</h3> <p>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p> 	<h3>전기집진기</h3> <p>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p> 
---	---	---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철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해영업부 : 서해시 금곡동 기신단지22호 14 대동터크노리온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